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조경희**

목차

1. 일본의 #MeToo와 포스트페미니즘
2. 페미니즘의 제도화와 젠더 백래시의 맥락
 - 2.1.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 2.2. 젠더 백래시와 역사수정주의의 결합
3. #MeToo의 비가시화와 포스트페미니즘 상황
4. 매개로서의 '위안부 문제'
5. 'K페미'라는 새로운 회로
6. 마치며

〈국문초록〉

일본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는 2015년 당시 TBS 방송국 워싱턴 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를 준강간 용의로 고발하였고 2016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2017년 5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야마구치에 의한 강간 피해를 세상에 알렸고, 그 후 책을 간행하여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경찰의 2차가해와 사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고발했다. 이토의 고발은 일본 #MeToo 운동의 선구적 사례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졌지만, 한편에서 세련된 외모에 유창한 영

* 이 논문은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년 봄 학술대회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에서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신지영 선생님의 토론과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충실한 심사평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0743)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일반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조교수

어를 구사하는, 전형적 ‘피해자성’을 벗어나는 이토는 일본사회에서 비난과 협박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을 떠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MeToo 운동의 배경으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페미니즘과 그 백래시 과정에 주목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보수화와 개개인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MeToo 운동을 비가시화했는지 살펴본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MeToo 운동의 전개과정을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시대 포스트페미니즘의 정동과 함께 검토한다. 한편최근 수년간의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MeToo 운동이 일본에도 소개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하여 새로운 지적 교류와 정동적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비롯하여 한국의 페미니즘 작품과 사회운동을 참조대상으로 삼는 일본 페미니즘의 새로운 시선과 그 소통의 가능성 또한 함께 검토한다.

국민핵심어 : 일본, #MeToo, 젠더, 백래시, 포스트페미니즘, 역사수정주의, 이토 시오리, 일본군 ‘위안부’

1. 일본의 #MeToo와 포스트페미니즘

일본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는 2015년 당시 TBS 방송국 워싱턴 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를 준강간 용의로 고발하였고 2016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2017년 5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야마구치에 의한 강간 피해를 세상에 알렸고, 그 후 책을 간행하여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일본경찰의 2차가해와 사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고발했다. 이토의 고발은 일본 #MeToo 운동의 선구적 사례로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졌지만, 한편에서 세련된 외모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전형적인 ‘피해자성’을 벗어나는 이토는 일본사회에서 비난과 협박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일본을 떠나게 되었다. 현

재 이토가 야마구치를 상대로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야마구치가 반소(反訴)하는 등 그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성폭력 고발 직후, 『뉴스위크』 일본판은 “#MeToo는 일본에서도 확산되는가”라는 특집을 꾸렸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세계적으로도 젠더격차 지수 최하위권을 지키는 압도적인 남성 우위사회 일본에서 성폭력 고발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 학회지나 대중잡지에서도 #MeToo와 관련된 특집들이 꾸며졌는데, 대부분 그동안 흔히 써왔던 ‘세쿠하라’(sexual harrasment의 약칭)라는 단어를 특집제목으로 달았던 것도 특징적이다²⁾. 1987년에 이 용어가 일본에 도입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이 꾸준히 사회문제로 거론되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모두에게 이미 친숙해진 이 단어는 최근 #MeToo운동이 가져온 폭발적인 파급력을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토의 고발 이후 사진가 아라키 노부요시(荒木経惟), 인권 저널리스트 히로카와 류이치(廣河隆一) 등 유명인사들의 상습적인 성폭행이 고발되었지만, 일본의 거대언론은 물론 SNS에서의 지지와 관심 또한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단지 일본 #MeToo 운동의 실패나 불가능으로 보기 전에 탈냉전 신자유주의 시대 페미니즘의 맥락과 그 반응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연구를 선구적으로 이끌어온 일본이 현재의 동시대적 정동을 널리 공유하지 못하는 배경과 요인은 무엇인가.

1) 『Newsweek』(日本版), 2017.12.5.

2) 예컨대 『女性&運動(特集 緊急シンポジウム #MeToo #WeToo #WithYou セクハラのない社會をどうつくる)』 279, 2018.06; 『Posse(特集 #MeTooはセクハラ社會を変えられるか?)』 39, 2018.7; 『現代思想(特集 性暴力=セクハラ: フェミニズムとMeToo)』 46, 2018.7. 한국에서 일본의 #MeToo 운동을 논한 글로 楊아람·李煥宜, 『일본의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와 미투 운동』, 『대동문화연구』 제10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6가 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본문에서 언급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페미니즘과 백래시 과정에 주목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보수화와 개개인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MeToo 운동을 비가시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일본 #MeToo를 둘러싼 상대적으로 냉담한 반응은 탈냉전기 페미니즘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운동의 제도화와 그들의 인정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백래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MeToo 운동의 전개를 젠더 백래시 ‘이후’의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시대 포스트페미니즘의 정동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는 논자마다 다르지만, 영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서 젠더 문제가 개인화·다양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앤 브룩스(Ann Brooks)는 1980년대 포스트 담론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식민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원리주의를 넘어서는 비판적 정치기획으로 포스트페미니즘을 다뤘던 한편 안젤라 매크로비(Angela McRobbie)는 백래시 이후 능력주의에 기대면서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똑똑하고 야심찬 여성들의 현실을 포스트페미니즘으로 불러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기쿠치 나쓰노(菊地夏野)는 포스트페미니즘의 특징으로 집합체로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아닌, 여성 개개인의 성공을 찬양하는 지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여성을 한 덩어리로 약자로 보는 것 자체가 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페미니즘의 신체화 과정을 보면 서구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성적 주체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가사능력을 비롯한 ‘여자력(女子力)’을 키움으로서 연애 및 결혼시장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생존전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³⁾.

이 글에서 말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매크로비와 기쿠치가 지적하는 맥락

3) 앤 브룩스, 김명혜 역,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 이론』, 한나래, 2003. Angela McRobbie, *Aftermath of Feminism*, SAGE Publications: London, 2009. 菊地夏野, 『日本のポストフェミニズム: 「女子力」 とネオリベラリズム』, 大月書店, 2019, 제3장, 참조.

에 가깝다. 즉 페미니즘의 대중화로 인해 거꾸로 페미니즘과 거리를 두거나, 혹은 이를 선별적으로만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으로 본다. 높은 ‘여자력’을 중요한 스펙 중 하나로 삼는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편에서 잃어가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⁴⁾. 그러나 한편에서 최근 수년간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와 #MeToo 운동이 일본에도 소개되면서 새로운 지적 교류와 정동적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소통은 최근에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한일 간에서 축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 제약에 갇힌 일본사회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접속의 시도는 어떤 새로운 작용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2절에서는 #MeToo의 배경으로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젠더 백래시의 맥락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현재 #MeToo가 비가시화, 무력화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4절에서는 #MeToo와 위안부 문제가 서로 어떤 연쇄작용을 이루고 있는지 볼 것이며, 마지막 5절에서는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필두로 한국의 페미니즘 작품들이 수용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사회를 참조대상으로 삼는 일본 페미니즘의 새로운 시선과 동아시아 내 지식과 정동의 순환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2. 페미니즘의 제도화와 젠더 백래시의 맥락

2.1.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일본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1970년대 우먼리브 운동의

4)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결합 양상에 대해서는 渡辺治, 『日本の新自由主義: ハーヴェイ『新自由主義』に寄せて』, デヴィッド・ハーヴェイ, 渡辺治 역, 『新自由主義: 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 作品社, 2007, 322~328쪽.

시작, 1980년대 여성학의 창설, 1990년대 젠더연구의 성립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제도적으로는 1985년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을 계기로 국적법 개정(1984)과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하 균등법) 제정(1985)이 실현되었고, 1990년대는 베이징세계여성회의(1995)에서 제시된 행동강령이 남녀공동참회사회기본법 제정(1999)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 외에도 육아개호휴업법(1995),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1999), 스토크 규제법(2000), 배우자폭력방지법(2001),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2003) 등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걸쳐 고용문제만이 아닌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정이 일정하게 실현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리는 너무나 일면적이다. 페미니스트들이 1985년을 ‘여성빈곤 원년’ 혹은 ‘여성분단 원년’이라 부른 것처럼⁵⁾ 균등법의 제정은 한편에서 고용의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노동자과전법, 그리고 여성의 낮은 임금을 장려하는 연금제도의 ‘제3호피보험자’ 규정⁶⁾ 도입과 함께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를 가속시켰다. 기회의 균등이라는 리버럴한 이상이 결과의 균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당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여성들이 간편한 노동력으로 재편된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부추긴 새로운 보수 세력은 이제 여성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사회진출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유연한(flexible)’ 노동력이 되기를 요청한 것이다.

1999년에 시행된 남녀공동참회사회기본법(이하 기본법) 또한 정부주도

5) 藤原千沙, 『貧困元年としての1985年: 制度が生んだ女性の貧困』, 『女たちの21世紀』, 編集委員会編, 『女たちの21世紀』 57, 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2009. 上野千鶴子, 『ネオリベラリズムとジェンダー』, 『ジェンダー研究』 20, 2017.

6) 후생연금이나 공채연금에 가입한 자가 부양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 중, 연 수입 130만엔 미만인 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는 제도다. 주로 샐러리맨 가정의 여성주부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었다. 여성들의 노후 복지 대책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반발을 일으키거나, 결혼한 여성들을 낮은 임금의 파트타임 노동으로 유도하는 등 여성들 사이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분단을 촉진하였다.

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과정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였다. “남녀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실현”을 전문에 내세운 기본법은 여성차별철폐조약 제2조에서 요구되는 ‘국내법 정비’에 대응한 것으로, 일본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제도화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면 여성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지향하는 리버럴 페미니즘의 방향성은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친화적이었다⁷⁾. 남녀의 ‘기회의 균등’ ‘공동참획’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개방에 의해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비정규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 시대 페미니즘의 역설적 운명은 일본특유의 현상은 물론 아니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페미니즘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정신’에 핵심적 요소들을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전문적인 중산층 계급의 여성들에게는 유리친장을 부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다른 한쪽 끝에 위치한 여성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저임금 서비스노동자, 가사노동자, 성노동자, 이민자...들에게는 임금소득과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적 존엄성, 자기향상, 해방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양극단에서 진행된 여성해방을 향한 꿈은 자본축적의 엔진에 속박된다.⁸⁾

즉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향해 ‘위험한 관계’를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여성차별이라는 비효율적 변수를 해소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분배의 불평등을

7) 上野千鶴子, 『クローハリゼーションのものとネオリベ改革と『ジェンダー平等』・『多文化共生』』, 辻村みよ子、大澤真理編, 『ジェンダー平等と多文化共生』, 東北大學出版會, 2010.

8)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돌베개, 2017, 8장 참조.

온존시킨 채 인정투쟁으로 이행함으로써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성공했다.

기본법 제정과 함께 ‘남녀공동참획’이라는 아젠다 아래서 정부와 지방 행정 내부에도 여성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기본법을 구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남녀공동참획 센터와 젠더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학술·교육 분야에서도 젠더론 강의나 시민강좌, 젠더 관련 출판물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⁹⁾. 페미니즘의 제도화는 한편에서 페미니즘 풀뿌리운동의 포섭과 전환을 가져왔다. ‘성차별 철폐’에서 ‘남녀공동참획’으로의 전환은 1990년대 이후 ‘민족차별 철폐’에서 ‘다문화공생’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제일조선인을 비롯한 소수자 운동이 수렴된 과정과도 맞닿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전국각지의 여성단체가 발간하는 간행물이나 교육용 소책자에는 ‘젠더프리’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였다. “성 편견에서 자유로운 상태” 정도의 의미를 담은 ‘젠더프리’라는 말은 제도적 평등이 실현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의식이나 태도를 계몽하는 맥락에서 쓰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말자체가 미국 젠더연구의 오독과 오역의 산물이었다¹⁰⁾. 출처와 맥락이 불명확한 이 말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방 행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슬로건처럼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그 자체가 페미니즘의 제도화 과정의 느슨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젠더프리’ 과잉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말을 “프리섹스를 장려하는 과격한 성교육”으로 호도하고 공격하는 백래시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었다¹¹⁾.

9) 牟田和恵, 「フェミニズムの歴史からみる社会運動の可能性: 『男女共同参画』をめぐる状況を通しての一考察」, 『社会学评论』 57(2), 2006, 299-300쪽 참조.

10) ‘젠더 프리’라는 말은 일본에서 미국의 교육학자 바바라 휴스틴이 제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마구치 도모미(山口智美)는 휴스틴이 오히려 구체성이 없는 gender free가 아니라 젠더에 민감해지는 gender sensitive가 더 중요하다고 했음을 밝혔다. 山口智美, 「『ジェンダー・フリー論争』とフェミニズム運動の失われた一〇年」, 上野千鶴子 외 편, 『バックラッシュ: なぜジェンダーフリーは叩かれたのか?』, 双風舎, 2006.

11) 각 지자체의 백래시에 대해서는 石橋, 「日本女性政策の変化と『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に関する歴史的研究」, 立命館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博士論文, 2014.

백래시의 대표적 논자인 심리학자 하야시 미치요시(林道義)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성과 모성, 주부의 복권을 제창하기 시작했고, 기본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페미니즘을 “정권의 중심을 차지하여 가족을 파괴하는 해악”으로 보고 반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¹²⁾. 하야시를 비롯한 백래시 담론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에 비해 백래시를 비판하는 페미니즘 측 반격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기다려야 했다¹³⁾. 석향은 백래시 세력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측의 늦은 대응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¹⁴⁾. 일본에서는 이미 1994년에 수전 팔루디의 *Backlash*(1991)가 번역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책의 내용을 일본의 현실 속에서 자각적으로 받아들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처음부터 ‘젠더프리’라는 불명확한 용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역설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싹튼 백래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거나 위기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2. 젠더 백래시와 역사수정주의의 결합

그런데 위의 점을 백래시 세력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늦은 대응이라는 시차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젠더 백래시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젠더프리’ 담론 외에도 앞서 본 가정주부들의 연금부담 문제나 부부별성제

제4장 참조.

12) 林道義, 『父性の復権』, 中央公論社, 1996; 『主婦の復権』, 講談社, 1998; 『フェミニズムの害毒』, 草思社, 1999; 『母性崩壊』, PHP研究所, 1999; 『母性の復権』, 中央公論社, 1999; 『家族の復権』, 中央公論社, 2002; 林道義, 『家族を蔑む人々: フェミニズムへの理論的批判』, PHP研究所, 2005.

13) 浅井春夫他編, 『ジェンダーフリー: 性教育バッシング—ここが知りたい50のQ&A』, 大月書店, 2003; 木村涼子編, 『ジェンダー・フリー・トラブル: バッシング現象を検証する』, 白澤社, 2005; 日本女性學會研究會編, 『Q&A男女共同参画 ジェンダーフリー・バッシング: バックラッシュへの徹底反論』, 明石書店, 2006; 双風舎編集部編, 앞의 책. 若桑みどり他編, 『「ジェンダー」の危機を超える!—徹底討論! バックラッシュ』, 青弓社, 2006 등이 있다.

14) 石橋, 앞의 논문.

와 같은 현재적 사안들이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¹⁵⁾. 1990년대 후반은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나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만화 『전쟁론』 등 역사수정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며, 그 주된 논객들이 젠더 백래시에도 가담하고 있었다. 예컨대 역사를 “과학이 아닌” “민족의 로망”이라 부른 새역모 회장 니시오 칸지(西尾幹二) 및 핵심멤버인 다카하시 시로(高橋史郎), 야기 히데츠클(八木秀次) 등은 일본군 ‘위안부’의 교과서 기술을 부정하는 한편에서 젠더 백래시의 주역으로도 활약했다¹⁶⁾.

그들은 ‘모성의 복권’을 내걸고 여성들의 자율적 영역을 부정하는 한편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로 불러 피해자들과 성노동자들을 동시에 모욕하는 담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해왔다. 독일과 일본의 반페미니즘 움직임을 비교한 히메오카 도시코(姫岡とし子)는 독일과 다른 일본의 특징으로 애국을 말하는 우파세력과 반페미니즘과의 결합을 지적하였다¹⁷⁾. 90년대 후반 이후 젠더 백래시와 역사수정주의는 상승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그들의 동력의 핵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 점은 4절에서 다시 서술한다).

90년대 역사수정주의 담론은 2000년대에 들어 차원이 다른 두 보수 세력을 낳았다. 하나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합을 통해 형성된 광범위한 극우세력이다. 그들은 ‘일본회의’와 ‘신토정치연맹’ 등 일본 최대급의 극우 정치·종교단체를 기반으로 삼았고 『산케이신문(産経新聞)』 『세이론(正論)』 『쇼쿤(諸君!)』 『SAPIO』 등의 보수언론을 주요무대로 활약했다. 이

15) 예컨대 호소야 미노루는 빠른 시기에 젠더 백래시를 일으킨 사안들을 1.선택적부 부별성제, 2.전업주부 세금·연금문제, 3.모성·부성의 복권, 4.젠더프리 교육, 5.소녀들의 성적 활동, 6.국가전시성폭력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 細谷實, 『男女共同参画に對する最近のバックラッシュについて』, 『We learn』, 2003.8.

16) 西尾幹二·八木秀次, 『新・國民の油斷—「ジェンダーフリー」「過激な性教育」が日本を亡ぼす』, PHP研究所, 2005.

17) 姫岡とし子, 『日本とドイツの反フェミニズムとナショナリズム』, 『政策科學』 22, 2015.3, 237쪽.

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프리 교육’은 애국심과 전통적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었다. 2005년 5월에는 당시 내각 관방장관이던 아베신조(安倍晋三)를 좌장으로 내세운 ‘과격하한 성교육·젠더프리교육 실태조사 프로젝트’가 발족되었던 것처럼¹⁸⁾ 젠더 백래시는 시민사회 내 반페미니즘 운동이라는 한 파트를 벗어나, 자민당 극우정치인들 스스로가 견인하는 대보수연합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역사수정주의가 형성한 또 하나의 보수 세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광범위한 네티우익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급성장한 네티우익의 존재는 ‘혐한류’ ‘재일특권’ 등의 담론을 거쳐 ‘행동하는 보수’를 자임하는 ‘재특회(재일코리아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모임)’의 헤이트 스피치로까지 발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종주의와 배외주의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¹⁹⁾ 인종혐오의 측면에 비해 이들의 여성혐오 측면이 부각되지 않았다. 키쿠치의 지적대로 1990년대 역사수정주의도 2000년대 헤이트 스피치도 대부분 ‘위안부’의 부정 혹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²⁰⁾. 즉 새역모가 일본인의 긍지와 애국심을 훼손하는 ‘자학적’ 역사교과서를 비난할 때도, 또 재특회가 거리에서 혐한시위를 벌릴 때도 그 중심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욕과 비난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 점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재특회의 생태를 취재해온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는 “일본 네티우익에도 여성혐오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박권일의 질문에 대해 “재

18) 『自民党『過激な性教育・ジェンダーフリー教育を考えるシンポジウム』抄録』, 『金曜日』 567, 2005년7월29일.

19) 한국에 소개된 대표적인 저작으로 야스다 고이치, 김현욱 역, 『거리로 나온 네티우익: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후마니타스, 2014; 히구치 나오토, 김영숙 역, 『폭주하는 일본의 배외주의: 재특회, 왜 제일 코리아를 매적하는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5가 있다.

20) 菊地夏野, 『慰安婦』問題を覆うネオリベラル・ジェンター秩序: 『愛國女子』とポストフェミニズム』, 앞의 책, 제6장.

일조선인과 결혼한 일본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²¹⁾. 혐오발화가 단발적 행위가 아닌, 역사적으로 축적된 언어적 습관을 인용, 반복하는 행위라고 한다면²²⁾ 그 주된 공격대상이나 혐오의 강도가 각국의 역사·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야스다는 일본에서 여성혐오를 민족차별이나 인종혐오의 종속적 변수로만 인식함으로써 역사수정주의와 결합된 젠더 백래시의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젠더 백래시와 역사수정주의의 결합은 기존 리버럴 세력과 페미니스트,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반일’이라는 잣대로 공격함으로써 일본 시민사회의 대항담론을 빈곤한 정치적 상상력 속에 가둬놓았다. 2002년 2채널에 생긴 ‘페미나치를 감시하는 게시판’은 2016년에 “문화과 괴·가족부정의 과격 페미니즘과 반일책동을 감시하고 주의를 환기한다”는 목적으로 ‘페미·반일책동을 감시하는 게시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²³⁾. 역사수정주의 콘텐츠는 잡지나 만화에서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한 ‘혐오 비즈니스’로 확대되었다. 시리아 난민을 조롱하는 일러스트를 그린 만화가 하스미 도시코(はすみとしこ)는 그 후 재일조선인, 페미니스트, 오키나와 등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가 ‘위장약자’로 부르는 사람들을 공격해왔다. #MeToo 이후 그가 “증거는 없어도 내 몸이 기억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토 시오리와 ‘위안부’ 할머니의 일러스트를 나란히 배치시켜 조롱한 것은 이 흐름의 핵심을 보여준다²⁴⁾. 역사수정주의의 대중화가 가져온 현재 상황은 역사적 전문성보다는 만화가, 유튜버, 연예인과 같은 비전문가들의 실감을 바탕으로 한 반지성주의 현상으로²⁵⁾ 이는 일본사회 전체가 소수자나 피해

21) 박권일, 『여성 혐오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나•들』 16, 2014.02.

22) ジュディス・バトラー, 竹村和子 역, 『觸發する言葉: 言語・権力・行爲体』, 岩波書店, 2004, 제1장 참조.

23) 『フェミ反日策動を監視する掲示板』<http://bbs6.sekkaku.net/bbs/seirondoku/> (최종 검색일: 2019년 7월 12일)

24) <https://i.pinimg.com/originals/3c/b0/4b/3cb04be396dae67605feca93b13e307c.jpg>

자에 대한 백래시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전후 일본의 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역사수정주의)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제도화·대중화 과정을 경험했고, 그 결과 한국보다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젠더 백래시를 겪게 되었다. 역사수정주의와 헌법개헌 등 정치적 백래시와 함께 진행된 젠더 백래시에 대해 당시 페미니즘 진영에서 그 심각성을 일찍이 포착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말하자면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시작된 역사인식 문제는 일본 페미니스트들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페미니즘은 내셔널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당시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의 문제제기는 ‘위안부’ 문제가 내포하는 식민-젠더-계급 폭력의 복합성을 페미니즘 대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시켜 버렸다. 야마구치 토모미(山口智美)도 2000년대 초반 페미니즘운동이 “남녀공동참여에 관여하는 층”과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는 층”으로 나뉘었고, ‘위안부’ 문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다고 돌아보고 있다²⁶⁾. 1990년대 식민주의 역사인식·페미니즘 등 인권운동을 담당한 주체가 서로 분리되었던 것에 비해 반페미·역사수정주의자들은 대연합을 형성하여 백래시의 물결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배경이 2000년대 페미니즘 운동의 후경화로 이어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3. #MeToo의 비가시화와 포스트페미니즘 상황

다시 #MeToo로 돌아가보자. 2018년 이후 영국에서 살기 시작한 이토

25) 이 과정에 대해서는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青弓社, 2018, 제1장 참조.

26) 山口智美, 『官民一体の「歴史戦」のゆくえ：男女共同参画批判と「慰安婦」否定論』, 『海を渡る「慰安婦」問題——右派の「歴史戦」を問う』, 岩波書店, 2016(야마구치 토모미 외, 임명수 역,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 우파의 '역사전'을 묻는다』, 어문학사, 2017).

시오리는 BBC의 특집프로그램²⁷⁾에 등장하는 등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였고,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처하는 선진국의 법제도나 자원체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토의 뒤를 이어 작가 아이츄가 광고회사 근무시절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했고, 모델 KaoRi가 사진가 아라키 노부요시의 사사진(私寫眞)이라는 표현방식이 모델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성립되어 왔음을 고발했다. 어느 여성기자는 재무성 사무관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의 저질한 성희롱을 밝혀 그를 사임으로 몰아넣었다. 인권 저널리스트 히로카와 류이치의 자신의 권위를 활용한 상습적 성폭력과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는 8명을 넘는 제자들에게 의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2018년 8월에는 도쿄의과대학이 “결혼, 출산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은 의사로서의 가동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입시 합격률을 조작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여성차별의 실태에 경악하고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매스미디어와 의료관계자들의 냉담한 반응은 오히려 이것이 빙산에 일각이라는 현실을 널리 세상에 알렸다. 일본에서 #MeToo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그 차별과 폭력의 강도가 약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지와 공감의 확산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일본사회에서 비가시화되는가.

앞서 본 바같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일어난 신자유주의와 신보주주의의 결합 양상은 백래시 세력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페미니즘에 불온함과 피곤함을 느끼는 광범위한 층을 낳았다. 그것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일본의 인권 소수자운동의 위로부터의 제도화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인정은 ‘남녀 공동참획’, ‘다문화공생’, ‘젠더프리’, ‘바리어프리’ 등의 손쉬운 명칭으로 소비되어, 정치적 올바름의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수용되었다. 2016년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하자 이 현상을 정당화하듯이 일본에서도 정치

27) Japan's Secret Shame, BBC 2018.7.26.

<https://www.bbc.co.uk/programmes/b0b8cfcj>

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pc경찰’ 등으로 야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은 **반정치주의 혹은 탈정치주의** 감수성이 첫 번째 특징이다.

1989년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지원한 무타 가즈에(牟田和恵)는 일본에서 ‘sexual harassment’라는 개념이 ‘세쿠하라’로 불려 급속히 대중화되었던 것은 그것이 보수적 도덕주의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임금 인상이나 고용조건 개선 등 비용이 드는 시책보다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차원에서 ‘세쿠하라’가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²⁸⁾. 즉 ‘sexual’보다는 ‘harassm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피하는 일본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보급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용어와 개념의 보급이 반드시 성폭력의 심각성이나 피해자들의 이픔에 대한 상상력,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MeToo 고발대상자 중 유명인사 4명은 사죄는커녕 사실을 부정하고 고발자들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했다. 오히려 ‘세쿠하라’ 등의 손쉬운 언어가 말장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놀림·장난·조롱은 1970년대부터 페미니즘 운동을 대하는 미디어의 일관적인 태도지만²⁹⁾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롱의 실천은 너무나 일상적, 반복적으로 개개인의 몸과 마음에 작용한다. 조롱은 놀림과 놀이 사이에서 자신을 pc의 단죄로부터 지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탈pc적 감수성이 #MeToo운동을 끊임없이 무력화시킨다.

둘째로, #MeToo 고발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자기책임론**이다. 2004년 이라크에서의 인질 납치, 2015년 IS의 인질살해, 그리고 2018년 시리아에서 저널리스트가 구

28) 牟田和恵・岡野八代, 『フェミニストたちの歴史をつなぐ』, 『現代思想 性暴力=セクハラ』, 2018.7.

29) 에하라 유미코(江原由美子)는 이미 1981년에 ‘놀림의 정치학’을 집필하여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놀림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江原由美子, 『からかいの政治學』, 『女性解放という思想』, 勁草書房, 1985. 최근의 글로는 堀あきこ, 『〈からかいの政治〉 2018年の現在』, 『現代思想 性暴力=セクハラ』, 2018.7.

속되었을 때도 일본정부와 국민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으로 귀착시키는 자기책임론은 2000년대 초 고이즈미 정권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서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의 경우 과거 천황제국가에서 천황의 가해책임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에도 뿌리가 있어 보인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전시기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책임의 체계’로 부른 것은 유명하지만, 이와 같은 특징은 전쟁책임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대응과정에서도 종종 거론되었다.

한국의 일부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되는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프레임 자체를 무효화하고 희화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토 시오리의 기자회견 후 그의 ‘이국적 외모’와 ‘당당함’에서 허니트랩(미인계)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셔츠의 단추를 푼 편안한 옷차림에서 피해자로서의 틈새와 실수를 찾는 반응들도 많았다. 앞서 본 것처럼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재일특권론, 2016년 시리아난민 위장론 등 자기책임론은 그동안 대상을 바꾸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을뿐더러 더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MeToo 고발과 지지의 표출을 막아내고 있다.

셋째로, 일본 #MeToo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여성들의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이 적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 스스로가 **집합적인 젠더 경험을 자신과 분리**하는 경향이다. 이 경향은 자기책임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험을 개인화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 예컨대 작가 아마미야 카린(雨宮處凜)은 90년대까지 여성억압적인 서브컬처에 빠져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성의 아픔에 의도적으로 둔감해지는 방법”을 통해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있었음을 고백했다³⁰⁾. 1990년대 말 소위 ‘원조교제’를 했던 여고생들이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주장했던 것은 리버럴한 남성연구자들이었다.

30) 雨宮處凜, 『『女の痛み』に向き合う』, 『現代思想 性暴力=セクハラ』, 2018.7.

경제 불황과 사회불안 속에서 여성억압적인 성관계를 온존하면서 여성들이 ‘성의 주체’가 되기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 담론 속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다.

고도소비사회와 포스트모던 문화로 특징지어지는 1980년대 이후 일본 사회는 만화나 게임, AV 등 서브컬처의 이름으로 여성억압적인 문화상품을 양산해냈다. 모든 가치가 등가로 병존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이나 고통조차도 하나의 소재(ネタ)가 되는 소비시장에 ‘주체적으로’ 침입해왔다는 쓰라린 경험과 기억이 있다. 최근 AV 강제출연 등 노골적인 인권침해가 알려지면서 90년대적 가치상대주의적 문화의 폭력성이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산업을 ‘성을 파는’ 여성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일본사회에서 ‘성적 주체’의 문제는 끝까지 남는다. 사진가 아라키의 예술성을 평가하면서 성착취를 고발한 모델에게 위화감을 드러낸 여성들이 많았던 것은 상징적이다. 자기결정권이라는 환상에 자신들의 고통을 감춰온 여성들이 스스로 젠더폭력을 웃어넘길 경우 고통의 고발은 여성들 자신에 의해 무효화되어 버린다³¹⁾. 이와 같은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을 일본 #MeToo운동의 배경에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반복하자면 일본에서 #MeToo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그들의 폭력의 강도가 약했던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는 언론, 방송, 광고나 문화 콘텐츠 전반에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일상적인 대상화, 상품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자기책임을 이유로 젠더

31) 2018년 12월에는 주간지『SPA!』가 소위 ‘가라노미’(여성참가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술자리) 특집을 꾸며 ‘성관계를 쉽게 할 수 있는 여대 뺑깡’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여대생 수명이 change.org 사이트를 통해 즉각 항의서명운동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출판사는 “여성의 존엄에 대한 배려 없는 치졸한 기사를 게재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깊이 사죄드린다”는 사죄문과 함께 잡지 출간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사내용이 오히려 남성차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성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한다” “착취당하는 아저씨들의 판타지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등의 반응들이 여성들한테 나오기도 했다. 鈴木涼美, 『『週刊SPA!』を謝罪させた女たちは一体何にムカついているのか』, 『IRONNA』, 2019.1.21. <https://ironna.jp/article/11711?p=1> 등.

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적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스트 페미니즘 상황은 결과적으로 여성들 사이의 더 미세한 분단을 낳고 있다.

4. 매개로서의 ‘위안부 문제’

앞에서 본 백래시 이후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은 #MeToo의 비가시화를 진단하는데 지배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MeToo의 임팩트를 보다 확장해서 볼 때 겉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의 적극적인 접촉의 시도들을 볼 수 있다.

일본 #MeToo 운동에서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두 가지의 방향성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적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임팩트를 #MeToo의 시조로 되새기고자 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맥락이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국제적으로도 ‘성노예제’라는 말을 공유하게 한 성과를 말하면서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역사를 지금 현재 일본과 적극적으로 접촉시킨다. 그리고 #MeToo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원인을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사회의 체질에서 찾는다. 거꾸로 한국에서는 위안부 운동의 경험의 축적과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이 만나 #MeToo운동의 커다란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MeToo와 위안부 문제를 연결시키는 구도는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 시민사회를 본보기로 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³²⁾. 앞서 언급한 무타는 위안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안부문제는 #MeToo다!〉라는 짧은 동영상 제작하여 수요집회의 모습과 함께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담

32) 예컨대 2018년 8월 12일의 집회 〈日本軍「慰安婦」メモリアル・デーin東京金學順さんから始まった#MeToo〉 https://pbs.twimg.com/media/Di_JIszUUAeA14V.jpg

있고 영 페미니스트 예술가집단인 내일소녀대(明日少女隊)도 “‘위안부’문제는 #MeToo다”를 내세워 각지에서 ‘망각에 대한 저항’ 퍼포먼스를 펼쳤다³³⁾. 그 동안의 ‘위안부’ 문제 연구의 전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운동의 지속,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추진,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호응, 그 속에서 한국·일본·제일조선인들 사이의 참조와 연대의 축적³⁴⁾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지평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위안부’ 피해의 역사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장을 참조대상으로 삼고 일본 #MeToo를 임파워하고자 하는 시간적, 공간적 접속은 #MeToo운동과 위안부문제 양쪽에서 국민국가 스케일을 벗어나는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이토 시오리와 서지현이라는 두 상징적 인물의 비교문화적인 소통보다도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복잡한 시선의 교차를 낳고 있다.

#MeToo와 ‘위안부 문제’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앞서 본 역사수정주의 세력에게도 위안부 문제가 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이 정권을 잡으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역사전’으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³⁵⁾. 일본인의 전통, 성별역할과 가족주의, 애국심을 말하는 아베 스스로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고 고노담화의 재설정을 들고 나섰다(결과적으로 현재 아베정권은 이를 체념했지만 말이다). 반복하자면 그들은 ‘위안부’ 문제의 부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키웠고, 또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하고 젠더 백래시를 추진해왔다.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은 위안부 부정론과 반페미니즘 활동을

33) <https://www.youtube.com/watch?v=JJU8lvIbHsc>

<https://tomorrowgirlstroop.com/ianfu>

34) 그 성과로 김부자, 김창록 외 편저,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한일 합의에 대항하여』, 민속원, 2018 참조. 동시에 지원운동을 비판하면서 ‘화해’의 이름으로 역사수정주의로 접근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金富子, 『繼續する植民地主義とジェンダー: 『國民』概念・女性の身体・記憶と責任』, 世織書房, 2011, 제7장 참조.

35)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앞의 책,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제1장 참조.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001년 9월에는 ‘일본회의’ 계열의 ‘일본여성모임’이 결성되어 젠더 백래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위안부문제를 끝장내기 위해” 2011년에 설립한 나데시코 액션(なでしこアクション)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견과 다른 결의안을 낸 지방의회에 대한 항의,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등 국내외 반일활동 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단체대표 아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는 원래 재특회에 운영진으로 참여하다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나데시코 액션을 결성했다. 그는 자민당 극우정치인 스키타 미오(杉田水脈)와 함께 (그들에게는 ‘반일좌파’ 기관인) 유엔에서 ‘위안부’가 역사왜곡임을 주장하였고, “남자들이 만든 ‘위안부’ 문제에 여성들이 나선다”는 문구와 함께 『여성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위안부문제』라는 공저도 출간했다.

소위 ‘아베 칠드런’으로 정치권에 들어간 스키타는 페미니즘만이 아니라 LGBT, 난민, 재일조선인 등 모든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혐오 발언을 통해 네티우익들의 인기를 얻은 정치인인데, 특히 유엔에서의 로비활동과 세계각지에서의 소녀상 건립반대운동 등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역사전’에 앞장서고 있다. 스키타는 “리버럴은 20년, 30년 전부터 꾸준히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엔을 통해 어떻게 세계에 거짓을 뿌릴 수 있는지 NGO를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수세력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가짐으로써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야 한다고 한다³⁶⁾.

남녀평등을 ‘반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스키타가 #MeToo를 ‘현대의 마녀사냥’으로 불러 공격한 것은 포스트페미니즘의 차원을 넘어 안티페미니즘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그는 이토 시오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과실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으로 아마구치의 편을 들어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토에게 고발당한 아마구치 또한 아베 신조의 인물 평전을 낼 정도로³⁷⁾ 현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

36) 杉田水脈・田沼たかし, 『(對談)國連で日本を貶めるリベラルな人たち』, 『Japanism』 43, 2018.6.

려진 인물이다. 이토는 저서 『Black Box』에서 성폭행 후 아마구치의 태도, 약물혼입의 가능성, 아마구치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찰과 검찰의 2차가해, 그리고 예정된 체포의 갑작스러운 취소 등 악몽같은 경험들을 자세하게 적었다. 이토는 수사과정에서 “고소하면 저널리스트로서의 인생은 끝난다”는 협박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아마구치의 체포는 돌연 취소되었다.

여기서 사건 직전에 아마구치가 썼던 기사가 “한국군에 베트남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³⁸⁾. 이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보수언론 내부에서도 날조와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되어 TBS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정도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TBS가 철회한 기사를 독자적으로 보수잡지 주간분춘(『週刊文春』)에 발표한 것을 이유로 워싱턴 지국장에서 해임되었다. 기사를 발표하는 과정에는 아베정권 측근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³⁹⁾.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할 때 일본 #MeToo운동에는 개개인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시오리를 지원하는 모임이나 세력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사정이 관계했을지 모른다.

그 속에서 2019년 4월 10일 ‘이토 시오리의 민사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Open the Black Box’가 결성된 것은 특기할만하다. 원래 ‘Fight Together With Shiori(FTWS)’라는 명칭으로 준비모임을 가졌던 몇몇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블랙박스를 하나하나 열어가는 시작”이라는 취지로 모임은 정식 발족했다. 상징적인 것은 150명이 모인 이 자리의 중심에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지원운동을 이끌어온 재일조선인 2세 양징자(梁澄子)가 있었던 점

37) 山口敬之, 『暗闘』, 幻冬舎, 2017; 『總理』, 幻冬舎, 2017.

38) 『歴史のスクープ 韓国軍にベトナム人慰安婦がいた! 米機密公文書が暴く朴槿恵の“急所”』, 『週刊文春』 2015.4.2.

39) 『LITERA』 편집부, 2017.11. <https://lite-ra.com/2017/11/post-3573.html>

이다⁴⁰⁾. ‘위안부’ 운동을 이끈 재일조선인이 일본 #MeToo 지원운동의 중심에도 서야만 한다는 사실이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쓸쓸하기도 하는 일본 페미니즘 운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성폭행에 대한 사법판단에 항의하는 플라워시위⁴¹⁾. 2019년 4월 이후 매월 11일 전국 대도시에서 200~400명의 여성들이 모여 자신들의 성폭력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항의행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3월~4월에 성폭행과 관련해서 전국의 지방법원에서 나온 연이은 무죄판결이었다. 예컨대 3월 12일 후쿠오카 법원은 중간강제로 고발된 남자에게 “남자는 여성이 합의했다고 착각했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내렸고, 4월 4일 나고야 법원에서는 친딸에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학대를 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딸이 “저항하려면 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범죄적 판결에 항의하면서 여성들이 꽃을 들거나 꽃무늬 옷을 입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담아 ‘플라워 시위’로 명명했다. 모임을 기획한 중심인물인 기타하라 미노리(北原みのり)는 작가로서, 사업가로서 일본의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어왔다. 그는 한류에 열광한 여성들의 욕망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고, ‘위안부’ 운동에 개입하는 활동가이기도 한다. 그동안 한일 간에서 쌓아온 ‘위안부’ 운동의 축적, 그리고 한국과의 소통의 순환이 어떻게 일본 페미니즘에 힘을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앞을 가로막아 서는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주류 여성들의 존재를 어떻게 가시화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5. ‘K페미’라는 새로운 회로

한국의 #MeToo를 참조틀로 삼는 것은 사회운동의 영역만은 아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한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이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

40) <https://www.facebook.com/OpenTheBlackBox/>

41) <https://www.flowerdemo.org>

은 일본 페미니즘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모른다. 국내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된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에서 2018년 12월에 출간 후 나흘 만에 3쇄를 찍고, 4달 만에 13만부를 찍는 돌풍을 일으켰다. 2019년 7월 15일 현재도 아마존 재팬 ‘외국문학 작품 랭킹’에서 『어린 왕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의 히트에 이어 조남주의 『현남 오빠에게』, 이민경의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정세라의 『피프티 피플』 등 젊은 세대의 한국 페미니즘 작품들이 속속 번역되었고, 최근 “한국·페미니즘·일본”이라는 특집을 꾸민 『文藝』 2019년 가을호는 1933년 창간 이래 86년 만에 이례적인 3쇄를 찍는 기록을 세웠다. 확실히 ‘K페미’로 부를 수 있는 장르가 일부의 매니아층을 넘어 하나의 대중서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이 현상은 한류에 대한 관심과 연동되어 있다. Kpop 여성 아이돌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남성 팬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또 BTS 멤버가 읽은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의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아마존에서 1위에 올랐다. 다만 그것을 아이돌 팬들이 만들어낸 거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본에서 Kpop 아이돌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는 그들이 페미니즘이나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Kpop에 대한 동경은 미완성의 소년소녀들을 선호하는 일본의 아이돌 문화에 대한 반감과 비판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페미니즘과 일정한 친화적 관계를 갖는다.

동시에 세계 18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이 유독 일본에서 많이 읽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유사성과 거리감이 적당히 개재하기 때문일 것이다⁴²⁾. 관습적인 차이를 감안해도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젠더 억압 구조를 재생산해왔으며, 한국은 페미니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일본보다 더 압축적으로 경험해왔

42) 안은별, 『82년생 김지영』 ① 일본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다, 『IZE』, 2019.2.12.

다. 자신들보다 조금만 더 부각된 젠더 억압의 현실을 나열해주는 『82년생 김지영』의 서사는 일본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 다만 문학적인 경험으로 공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의 적당한 거리감도 필요하다. 고우노스 유키코(鴻巣友季子)가 번역이라는 언어조작 과정이 개입함으로써 작품이 신비성을 획득하고 독자들을 사로잡는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한 것처럼⁴³⁾ 일본의 독자들이 『김지영』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한국에 대한 거리감과 낯설, 동경 등의 감각이 거꾸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 소설가 가와카미 미에코(川上未映子)는 저자 조남주와의 대답에서 “이 소설의 매력은, 여성들이 느끼는 ‘공감’도 크지만 또 하나, 등장인물도, 내용도, 독자의 반응도, 정치적으로나 페미니즘적으로 ‘올바르다’는 것 역시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⁴⁾. “독자와 소설의 관계가 전혀 불안하지 않은 ‘올바른 소설’이라는 가와카미의 평은 문학적 미학의 부족함을 함의하는 것처럼 읽힌다. 작품을 비판하는 사람도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고 하거나 작품을 칭송하는 사람도 “이 정도로 알기 쉽게 순서를 따라 테마를 제시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것처럼⁴⁵⁾ 『82년생 김지영』이 주는 직접적인 올바름의 서사가 일본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평범한 여성들이 겪는 젠더 억압을 담담하게 나열한 『김지영』은 여성들의 경험이 개인화되는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에 ‘올바름’을 제공했다. 예컨대 1950년대 생 페미니스트인 사이토 미나코(齋藤美奈子)는 일본에서 앞서 본 균등법, 기본법 제정 등 페미니즘의 제도화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

43) 齋藤真理子・鴻巣友季子, 『(對談)世界文學のなかの隣人：祈りを共にするための『私たち文學』』, 『文藝』2019. 가을호.

44) 구리하라 준코, 기시와라 도키코, 『일본 여성들은 왜 ‘82년생 김지영’에 공감할까?』, 『일다』, 2019.5.4, <http://www.ildaro.com/8453>

45) 齋藤真理子・倉本さおり, 『‘82년생まれ、キム・ジョン’の謎を解く——語り手は誰なのか?』, webちくま 2019.7.18.

<http://www.webchikuma.jp/articles/-/1773>

영』에 해당되는 페미니즘 입문서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나카 미즈(田中美津)나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등 1970-80년대 저작들이 너무 빛이 바래버린 현실 속에서, “K페미는 ‘J페미의 ‘30년의 공백’을 매우 높은 역할을 다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토로하고 있다⁴⁶⁾.

아마존 재팬에 달린 100개 이상의 리뷰에는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 “나도 김지영”, “여성의 일상에 있는 무한한 절망”, “비통한 감각”, “절망 끝의 희망”,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는 등 작품에 대한 공감을 열정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한국이 부럽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 그려진 일은 많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타격을 입고 감각이 마비되어 이것이 보통의 일이 되어 버릴 정도의 절망입니다”⁴⁷⁾는 내용도 있었다. 한국의 #MeToo운동에 대해 “일본의 수준은 한국보다 낫다”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편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음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확실히 존재하며, 이들에게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동력은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 직접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한국을 선망하는 장면은 그동안 촛불시위를 비롯한 사회운동 과정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폭발적인 #MeToo 운동을 거쳐 『김지영』 신드롬 속에서도 더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다.

다만 한일 간 문화적 참조관계의 역전을 강조하는 서사는 식민주의와 근대화론의 위계질서를 거꾸로 설정하는 민족주의적 욕망으로 회수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계화나 ‘부러움’의 시선을 넘어선 문화번역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민주화와 IMF를 거치면서 일본의 바로 뒤를 달리는 신자유주의 국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개개인의 욕망이 집합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압축근대를 거친 탈식민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그 족쇄에서 벗어

46) 齋藤美奈子, 『世の中ラボ 【第106回】 いま韓国フェミニズム文學が熱い』, webちくま 2019.2.21. <http://www.webchikuma.jp/articles/-/1629>

47) Amazonカスタマーレビュー <https://amzn.to/32wgfuf5>

나고자 하는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발적인 #MeToo 운동 또한 이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 속에 젠더 폭력을 축적시켜온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본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자양분을 섭취해 온 일본에서, 왜 사회전반적인 백래시의 물결에 맞서는 대항적 페미니즘이 계승 확산되지 않았는가를 가까운 과거를 통해 들여다보는 일일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한 K페미 작품이 일으키는 조용한 파급력은 현재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시스젠더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는 틀에 박힌 관점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⁴⁸⁾. 『김지영』을 둘러싼 문화번역의 과정을 한일 간 주류여성들 간의 지적 교류로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성적소수자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신체적 비주류의 존재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야기를 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것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페미니즘 자체가 늘 안고 있는 과제다.

6. 마치며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젠더 백래시의 흐름에 주목하여 일본의 #MeToo 운동을 검토하였다. 일본에서 젠더 백래시는 역사수정주의와 헌법개헌 등 정치적 백래시와 함께 진행되어 커다란 보수연합의 물결을 형성했고 그 중심에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 역사수정주의와 반페미니즘으로 무장한 백래시 세력에 대해 페미니즘 운동 측은 전문성을

48) 예컨대 鈴木みのり, 『本：『わたし』に留まらない多様な『女性』の聲を巡って, 『新潮』 2019.3. 한동현의 페이스북 페이지 참조.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한동현%20킴·ジョン&epa=SEARCH_BOX

이유로 남녀공동참획을 말하는 페미니즘과 위안부문제를 말하는 페미니즘이 서로 나뉘져 큰 대항담론을 키우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MeToo운동이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은 이와 같은 백래시 ‘이후’의 대중적 보수화 혹은 탈정치화를 반영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탈맥락화, 자기책임론의 프레임은 90년대 여성억압적인 서브컬처의 영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집합적 경험을 자신과 분리시키는 포스트페미니즘 상황과 공명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일본의 페미니즘 운동이 시간적(‘위안부’ 문제) 공간적(한국) 확장을 통해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중요한 실천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실천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흐름에 대항하면서 진전되어 온 동아시아의 기억투쟁과 사회운동, 한류 등을 동력으로 삼아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이 움직임들은 지식인들의 담론을 넘어 대중들의 정동과 동시에 맞물리면서 복잡한 시선의 교차를 낳고 있다. 이것을 곧바로 한일 여성연대로 보거나, 혹은 국민주의적인 한일 비교문화론으로 정리하는 단일함은 피해야 한다. #MeToo와 ‘위안부’ 문제의 접속,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문화번역의 과정은 이미 대중들이 식민-냉전적 한일관계의 틀을 벗어나 날마다 관계를 갱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들을 탈식민·탈냉전기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김현영 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2~70쪽.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17~115쪽.
 정희진 엮음,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73~113쪽.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1~192쪽
- 김부자, 김창록 외 편저, 『위안부 문제와 미래에 대한 책임 한일 합의에 대하여』, 민속원, 2018, 1~277쪽.
-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돌베개, 2017, 289~314쪽.
- 히구치 나오토, 김영숙 역, 『폭주하는 일본의 배외주의: 재특회, 왜 제일 코리안을 배척하는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5, 30~66쪽.
- 야마구치 도모미·노가와 모토카즈·테사 모리스 스키·고야마 에미, 임명수 역, 『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 우파의 '역사전'을 묻는다』, 어문학사, 2017, 153~213쪽.
-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1997. ジュディス·バトラー, 竹村和子 역, 『觸發する言葉 : 言語·權力·行爲体』, 岩波書店, 2004, 3~109쪽.
- McRobbie, Angela, *Aftermath of Feminism*, SAGE Publications: London, 2009, 1~53쪽.
- デヴィッド·ハーヴェイ, 渡辺治 역, 『新自由主義 : 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 作品社, 2007, 290~347쪽.
- 菊地夏野, 『日本のポストフェミニズム: 「女子力」とネオリベラリズム』, 大月書店, 2019, 1~159쪽.
- 木村涼子編, 『ジェンダー·フリー·トラブル : バッシング現象を検証する』, 白澤社, 2005, 75~115쪽.
- 金富子, 『繼續する植民地主義とジェンダー: 「國民」概念·女性の身体·記憶と責任』, 世織書房, 2011, 139~209쪽.
- 倉橋耕平, 『歴史修正主義とサブカルチャー: 90年代保守言説のメディア文化』, 青弓社, 2018, 9~83쪽.
- 西尾幹二·八木秀次, 『新·國民の油斷—「ジェンダーフリー」·「過激な性教育」が日本を亡ぼす』, PHP研究所, 2005, 24~85쪽.
- 上野千鶴子 외, 『バックラッシュ: なぜジェンダーフリーは叩かれたのか?』,

双風舎, 2006, 241~282쪽.

2. 논문

雨宮處凜, 「『女の痛み』に向き合う」, 『現代思想 性暴力=섹ハラ』2018.7, 46~52쪽.

江原由美子, 「からかい의 정치學」, 『女性解放という思想』, 勁草書房, 1985, 171~194쪽.

藤原千沙, 「貧困元年としての1985年: 制度が生んだ女性の貧困」, 「わたちの21世紀」編集委員會編, 『わたちの21世紀』 57, 아시아女性資料センター, 2009, 19~21쪽.

姫岡とし子, 「日本とドイツの反フェミニズムとナショナリズム」, 『政策科學』 22, 2015.3, 229~244쪽.

堀あきこ, 「からかい의 정치」 2018年の現在」, 『現代思想 性暴力=섹ハラ』 2018.7, 178~189쪽.

細谷實, 「男女共同参畫に對する最近のバックラッシュについて」, 『We learn』 2003.8.

牟田和惠, 「フェミニズムの歴史からみる社會運動の可能性: 「男女共同参畫」をめぐる狀況を通しての一考察」, 『社會學評論』 57(2), 2006, 292~310쪽.

牟田和惠 · 岡野八代, 「フェミニストたちの歴史をつなぐ」, 『現代思想 性暴力=섹ハラ』 2018.7, 17~38쪽.

石橋, 「日本女性政策の變化と 「ジェンダー · バックラッシュ」 に關する歴史的研究」, 立命館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博士論文, 2014, 5~140쪽.

上野千鶴子, 「ネオリベラリズムとジェンダー」, 『ジェンダー研究』 20, 2017, 21~33쪽.

楊아람 · 李妍宣, 「일본의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와 미투 운동」, 『대동문화연구』 제10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6, 411~449쪽.

3. 기타

『나•들』 16, 2014.02.

『일다』 2019.5.4.

『Newsweek』 (日本版)2017.12.5.

『文藝』 2019.가을호

『Japanism』 43, 2018.6.

『女性&運動』 279, 2018.06.

『現代思想』 46, 2018.7.

『IZE』 2019.2.12.

『Posse』 39, 2018.7

『週刊文春』 2015.4.2.

webちくま <http://www.webchikuma.jp/>

Open the Black Box <https://www.facebook.com/OpentheBlackBox/>

Flowerdemo #MeToo #WithYou <https://www.flowerdemo.org>

Abstract

#MeToo Movement and Postfeminism in Japan

Cho, Kyung-hee

Japanese journalist Shiori Ito has accused Noriyuki Yamaguchi of raping, who were Washington branch director of TBS broadcaster in 2015, and filed a objection to the prosecutors who decided not to indict him afterward. In May of 2017, she held a press conference to inform the world of the rape caused by Yamaguchi, and then published a book accusing not only of sexual violence but also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y Japanese police and the problems of the judicial system. Ito's accusation was widely known overseas as a pioneering example of the Japanese #MeToo movement, but she had been a target of criticism and intimidation because of deviating from typical image of victim, such as speaking fluent English with sophisticated looks,.

In this article, I examine feminism and its backlash process in Japan since the late 1990s as a background of the #MeToo movement, and seeing how invisibility of #MeToo movement is intertwined with political conservatism throughout the society and neoliberal reorganization of individual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ss of the #MeToo movement in Japan with the reality of post-feminism on neoliberal and neoconservative era. On the other hand, in recent years, the explosive rise of Korean #MeToo movement and feminism have spread to Japan, causing a new intellectual exchange and affective circulation. In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best seller of “Kim Ji-young born in 1982”, we also examine the new possibility on circulation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Japan which brows Korean feminist works and the social movements.

Key words : Japan, #MeToo, gender, backlash, postfeminism, historical revisionism, Ito Shiori, ‘comfort women’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